









# “농사 지어봤자 뭐가 남아야지라”



지난 7월 25일 농민대회날 농민들은 출회했다. 인권을도 나오지 않아 인권을내어 이기고 돌부던 농민들을 솔로 이스트바다에 뿌리아니 했다. 곤봉과 헬멧 방패로 무장한 전경들에게 요충가죽의 몸으로 때 등하기에 농민들은 너무 알았다. 국민의 목숨을 좌지우지하는 식물을 질레에게 나온 일개 핸드폰과 바우려는 (질레투자협정) 우리나라 정부는 주름잡은 농민들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가

농촌의 현실을 취재하기 위해 기차에 올랐다. 지난 9월 29일(토)부터 10월 3일(화)까지 가을농항(농민·학생연대활동)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농촌의 현실을 사진으로 담아가기 위해서....

오라밤에 긴 시가를 기차양에서 보내야 하기에 취재를 하러 갔다기보다는 여행을 한다는 기분으로 몰렸다. 그러자마자 정박해 보이는 낭만적인 시골 풍경에 농촌의 현실을 느끼기 위해 가다의 사립(?)을 잊어버리고 막았다. “넌 밤 동쪽 길로 옛이야기 지을때는 살개미가 휘돌아가고, 영독배기 황소가” 이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하지만 한 3-40분 지나서였을까? 출발 노선쪽에 다가오니 넓게 노란색으로 펼쳐져 있던 눈밭은 근대군대 스투터 약간 검은 색을 나타냈다. 어질 턱 무르락에 구멍이 나서 걸을 땀땀 뱀처럼 밟았다.

그리고 스러져 있는 나락을 살리기 위해 끈으로 묶어 세운 것도 부족하다. 허탈한 '사오마이' 태풍의 상처는 아직까지 남아 있었다. 지구본만, 영리노-라노 현상으로 거울처럼 거울을 겪고 또다시 어증형 정중후로 피해를 입은 농민들. 다른 산악과 달리 예기치 않은 자연재해 피해를 당해야 하기에 국가 차원의 보상책이 확실하게 마련돼야 한다. 기차에 내려 버스로 갈아타는 터미널에서 술에 취한 한 아버지가 사작기를 들고 있는 나에게 다가와 사작을 걸어달랐다. 곧 카메라 렌즈에 들어온 아버지가, “사작 적었으니 술 사줘”라고 말하는 아버지의 눈빛을 막으며 애초가인 농민들을 생략해왔다.

그된 농촌임을 하면서 그 현실을 알기 위해 막걸리 황사발을 들이키고 술기운을 받아 마시는 농민들, 허탈한 농촌의 풍을 떠날 자식들을 그리워하며 들어오는 술 학장으로 외로움을 달래는... 터미널에서 만난 분이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겠지만, 학교가 돼도 마찬가지였다.



“술한지 사주소” 새우깡이 안주 전부의 농촌 활아버지, 활아버지의 깊게 패인 주름 시어로 농사지어봤자 빛만 나는 농민들의 현실이 흘러나온다.

학교에 가야하는 아이들이 더 좋은 교복환경을 받으려고 도시로 도시로 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이다. 문동장이 술으로 변태하고 귀신이 나올 거 같은 학교경멸을 보며 농촌 풍경을 낭만적으로 생략하는 것이 얼마나 비현실적인가를 새삼 느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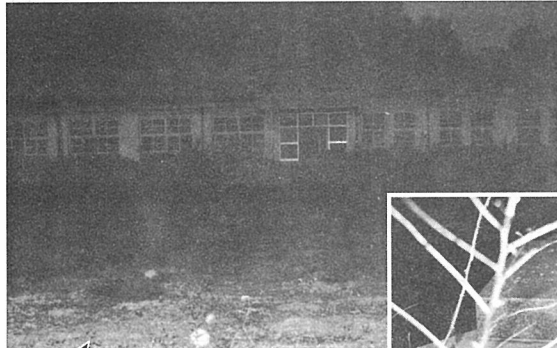
지난 여름 농항을 간 마을에 인사를 드리기 위해 농민회본의 차를 타고 가는 도중 늘게까지 마시는 활아버지, 활아버지를 만날 수 있었다. 내리찍는 가을 행행이라 추수하느라 정성없는 손놀림을 많이 보이지 않는 경정할 터라 마쳐 해아마 하는 농촌의 일두부족이 정성히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배를 한박스 싸주면서 “나는 가만하고 밭만 지고 있는 농사꾼이니까 마음만 즐겁게 살려 노력하는 사람이다”라는 이장님의 말씀과 지난 7월 25일 농민대회날 배상자를 트럭 학차에 싣고와 내리는 농민 분에게 “이거 두개나오신 분들과 나눠 먹으려고 내리는 거예요?”라는 정성은 나의 몸이 교차하면서 영지봉의 “항수”라는 시가 어슴프레 명여진다.

제작  
사진부



순환미널에 준비해져 있어 있는 농민의 정겨운 얼굴들, 젊은층이 빠져나간 농촌의 고령화를 느낄 수 있다. 미래의 농촌은 누가 지켜야 할 것인가



금곡국민학교 서 분교터  
개교일자 : 1983. 3. 1  
폐교일자 : 1991. 2. 28  
졸업생수 : 498명  
498명의 졸업생은 이제 졸업한 초등학교를 잃어 버린 것이다.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받기에 교실에 너무 많은 도시아이들, 사랑과 관심을 주기에 너무 부족한 농촌아이들, 늘어만가는 텅빈 운동장에 무성한 풀들만 자라고 있는 폐교된 금곡국민학교 서 분교가 울씨너스입니다.



“이경운이로 비록 대량개요, 밭에 어두워지기 전에 썩어빠져 버린 농민들을 날라야 될지 아니면 앞 행법에 알리던 색은경어들이느라 밭을개까지 일하는 시골 노부부, 그들은 도와주게 위해 지전 것을 세우는 이웃의 모습에서, 피폐해지는 농촌현실과 다르게 시골인들은 여전히 살아있었다.



6.7 2000년 10월 4일 770호

주제 기획



한국사회 보수·우익의 개념과 역사

### “민족의 이익마저 등한시 하는 보수는 없다”

보수의 의미를 쓰고 보수주의와 대립의 논리를 기록된 저자에게 어쩔 수 없는 한국의 지정 보수주의세력은 남북의 두 정상이 만나 합의한 공동선언의 영향으로 인해 요즘 정세상 약기에 관심이 없다. 민족주의라는 우익의 고유한 가치조차 담보 할 수 없는 한국의 보수주의 세력의 실체는 무엇일까? 보수주의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의미와 한국 정치사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그 실체를 파헤쳐 보도록 한다.

원집자

#### 한국사회의 보수주의 논란

97년 대선, 2000년 총선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던 현상은 각 정당이 이념적 정체성으로 자리매김 보수주의를 표방하고 나섰다. 97년 대선 당시 상대측으로 진보파라고 평가받던 야당 후보 김대중은 ‘원조보수’ ‘보수의 뿌리’를 자처하고 있는 김종필과 연합함으로써 정권교체를 달성할 수 있었다. 2000년 총선에서도 ‘개혁적 보수’, ‘합리적 보수’ 등 달라진 정세에 따른 이른바 ‘신보수주의’를 중심으로 각 당의 대결은 벌어졌다. “우익은 죽었다는 말이 보여주듯 어떤 ‘보수’ 또는 ‘우익’을 맞이하며 답답히 콧대를 킁칠 수 있는 한국의 정치중보와 지형은 상대적으로 ‘좌익’과 ‘진보’의 실 지를 매우 좁게 만들어 놓았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6·15 공동선언이 준 촉매 속에 이제 이러한 정치지형은 근본적인 변화를 맞이하고 있고, 오히려 “우익은 죽었다는 말이 거짓된 보수 우익 정당들이 ‘선언이 가져다 준 변화에 더욱 불만을 갖고 있다. 4·13 총선인 지난 지 채 달도 되지 않아 벌어지고 있는 이러한 ‘보수우익 세력들의 정세상 위기’는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 보수주의의 역사적, 이데올로기적 개념

보수의 우익은 비슷한 의미에서 사용되고 있지만 우익은 종종 무엇인가를 지키려 한다는 뜻에서 보수적 의미를 띠고 있다. 우익이라는 말은 프랑스어의 관행이 수입된 것으로 왼쪽이 급진적·혁신적 정파를, 오른쪽

이 점진적·보수적 정파를 의미하고 있는 언어학적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의미가 성립된 것은 1789년의 프랑스 대혁명 이후이다. 이와 함께 이 시기를 전후로 보수주의라는 정치이데올로기가 나타난다. 이때 같이 등장한 것은 자유주의와 마르크스주의(또는 사회주의)였다. 여기서 이데올로기란 단순히 세계관이란 의미를 넘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의식적이고도 집단적으로 형성된 아주 특수한 종류의 목적을 뜻한다. 혁명전후로 형성된 변화에 대한 보수적, 점진적, 급진적 입장으로 나뉠 수 있는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회주의는 각각 세력으로서 혁명이후 새로운 정치적 주체로 등장한 인민의 주권과 국가 문제를 둘러싸고 본격적인 타협과 대립에 들어간다. 이때 보수주의는 인민주권의 실제로서 자유주의가 설정한 “개헌”을 곧 사라져버리는 그림자와 같은 존재로 보고 가족, 자치 단체, 교회, 전통적인 질서와 같은 사회 집단들에 중요성을 부여했다. 변화를 막거나, 변화의 속도를 가장 느리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정파적 입장으로서 보수의 성향은 지금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며, 변화의 정상적인 것으로 된 현대사회에서 변화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를 앞세워 경고하고 있다. 한편 보수주의라는 의미 자체는 무엇을 우선 긍정적으로 보존하려는 보수주의인기부터 시작한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으로 장기간 안정만은 재도의 가치의 유용성과 효과를 옹호하지는 주의를 말할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수적”이라는 말은 ‘변동적’이라는 수식어와 다르다고 속도를 교순는 말한다. 변동은 ‘자신’이 지니고 있는 특권을 위협으로부터 지키기 위해 수동적이며 너무나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현상을 보이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보수주의’라는 단어가 붙은 것은 더욱이 당연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여기서 보수주의는 그 시대의 역사에 따른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것과 긍정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다. 이는 보수주의의 자체가 ‘다른, 나쁘고 견고에 자신, 혹은 자기 세력에 유리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나 구조를 옹호, 유지하려는’ 수구나, 기록된 유지와는 다르다는 것이

# “진정, 이 땅의 보수주의는 죽었는가”

▽97년 대선, 2000년 총선 등 매시기 선거 때마다 각 정당마다 ‘신보수주의’를 기치로 들고 있다.



고, 실제 프랑스 혁명시대 진보라고 불렸던 ‘자유, 개인, 인권’은 현재의 지배적 가치가 되어 보수주의의 정당의 기치가 되고 있다.

#### 현재 한국사회에서 보수주의의 의미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한국에서 의미하는 보수주의는 서구에서 형성된 보수주의와는 다른 개념으로 다가온다. 민족문제에 대해서 극우적 반공주의 또는 구미의 ‘우익’과는 달리 한 보수주의의 의미에서 조차 “도대대 다른 어느 나라에 민족의 이익을 등한시하는 보수가 존재하는가”에 대해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 사회의 보수주의에 대한 ‘재’ 기득권을 죽이고 양보 ‘못’하라는 ‘예측’의도 없고, 민족주의도 없고, 공동체주의도 없고, 그래서 내세를 정통이 없다는 일각에서의 냉소적 비판은 참으로 적절하게 다가온다. 이들이 진정한 보수주의세력이 되길 원하고, 그 의미가 내포하는 긍정적 의미를 획득하려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애국주의, 민족주의, 공동체를 위한 봉사, 도덕적 정결과 같은 가치들을 실현해 나가면서 그것을 정통으로 만들 때, 한국의 보수는 이념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다”는 말을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남한의 보수주의는 이러한 진정한 보수가 되기 위한 혁신과 변화의 필요성을 추구한다고 보다는 상황과 정세변화에 기회주의적으로 대처하면서 극단적이면서도 단발마적인 대응을 해온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다.

▽지난 4.13 총선 당시 편에 맞은 북한 시민단체들은 ‘보수정치관선’을 주장하기도 했다.



6월이 임박한 공동선언과 이후 진행되는 남북대화, 협력의 분위기에 극우와 냉전시대의 논리를 동시배하고 있는 조상일보는 당내에서 사까지 조직적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회창 총재의 “삼호주의, 자유민주주의의 시정정세에 기반한 통일, 북한은 해·미사일 발인은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 동일은 보수인가? 진보인가?

진보세력과 좌파는 민중문제와 좌파는 민중문제에 대해 서구에서 수십년 간 써왔었다. 서구의 공산대립기 남한의 진보세력(또는 좌파)은 통일이라는 민족문제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하나, 이 문제로 인해 엄청난 희생까지 치렀던 것이 우리사회의 진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우익의 화의’ 민중문제에 이미 끝난 것이라고 보지만, 민족분단이라는 특색에 많은 문제가 걸려 있는 우리는 이 문제를 안고 계속 새롭을 수밖에 없다는 충고를 교수의 지적은 남한 사회의 통일문제에 서구와는 다른 특색을 갖게 해주고 있다.

이제까지 본 보수주의의 의미 속에서 통일이라는 민족문제는 보수우익이 지향해야 할 가치라고 할 수 있으나 남한의 보수우익세력은 그러한 정당이 되어 있지 않다. 민족의 이익마저 등한시하는 보수는 진정한 보수의 태도가 아니라, 한 야당 의원의 광범하고 상식적인 주장인 우리나라의 보수우익 세력이 시대적 대세에 동향할 변화를 추종하고 있거나, 광범위한 대중의 정치적 그림과 분열을 우려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한국대학신문기자단 학술분과

창설 25주년 기념

## 대학(원)생 현상논문 공모

www.shinbo.co.kr www.cretop.com

www.shinbo.co.kr www.cretop.com

### 신용보증기금의 미래로 무능력자의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1. 주제
  -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신용보증제도의 역할과 방향
  -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기업실태평가제도의 발전방향
  - 신용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 기타 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주제
2. 참가내용
 

구분	보수	신청기간	특정
최우수작	1	500만원	
우수작	2	각 250만원	수상자에 대하여 신입직원
佳作	3	각 100만원	채용사전행렬일부 면제
장려	6	각 50만원	
3. 응모 및 논문제출 요령
  - 작성방법 : A4용지 20매 이상(한글 워드로 작성. 논문 1부, 요약문(A4 3매 이내), 디스켓을 함께 제출(전처리 명기))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E-mail(ksca4984@shinbo.co.kr)
  - 응모마감 : 2001. 4. 16 (일)
  - 문의처 : 조사연구팀 (02)710-4350/4362
  - 수상작은 홈페이지 www.shinbo.co.kr에 게시 및 개발지원, 창설 25주년 기념일(2001. 6. 1) 시상
4. 한국경제신문 후원
 

**신용보증기금**  
KOREA CREDIT GUARANTEE FUND  
121-744 서울서마로로 공덕동 254-5

## 영문속기

### “TOEIC, L/C 능력향상 최대”

과정	진출
영문속기사	외국회사(99%)의 최고급비서 Law Firm수확, 인턴십 강의필기 및 아르바이트 기회제공, 외국은행, 국제회의 강사(대학, 학원) 등 ■ 프리랜서(1시간당 \$500 + e)
컴퓨터속기사 (방송속기사)	국회, 시·구·의회 동 입법기관 청와대 동 행정기관 법인 등 사법기관 언론기관 : 자막방송 속기사 ■ 프리랜서(1시간당 35만원)
내취속기사	민·형사사건의 법리중개 내용 녹취록 작성 100%프리랜서(1시간당 35만원) KBS, MBC, SBS 등 방송사 자막 방송속기사
수필속기사	*부업(교부가 가치의 전문기술) [단기과정] *영문속기 : 시간당 \$500 + e *중급 : 3개월(50wm - 80wm) *컴퓨터속기 : 시간당 35만원 + e *고급 : 3개월(80wm - 130wm)

▶**컴퓨터교육과정**  
OAS과정 : 3개월(워드프로세서 지원, 컴퓨터 활용능력 지원)  
인터넷과정(3개월) 인터넷비즈니스, 정보검색사 자격대위

자격시험 : (사전필수) 한국속기교육협회(Since1954) 4회  
관련 신세계속기·컴퓨터학원(Since 65)  
사단 한국속기 교육협회(1954년 설립)지정 최우수원  
법인 ☎ 703-7554-5 http://www.ssa21.co.kr  
※서울역 → 지하철5호선 대명역/신세계속기학원 B/D관(1-6층)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신입생 모집

### Seeking Global Competence? Come and Study abroad at GSIS

1. 2001년도 신입생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 국제학 석사(M.A. International Studies) 과정 6명
  - 국제학 박사(Ph.D. International Studies) 과정 5명
2. 신입생 선발방법 및 전형일시 (선정일시: 2000년 11월 4일)
  - 가. 국내외 대학졸업예정자(특히 동 대학에 의해 동등 이상 학위인 인정된 경우 포함) 학부전공과 관계없이 서류전형과 영어면접을 통해 선발한다.
  - 나. 국내외 기업, 공공기관 직원인 신청자는 차관없이 유대한다.
  - 다. 영어 (Toefl, Toec, 토플, 텡) 중 택일 우수자는 우대한다.
3. 임시 교무 및 접수
  - 가. 교무기간 : 2000. 10. 16 - 10. 26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본관 1층 회계과)
  - 나. 접수기간 : 2000. 10. 24 - 10. 26  
(중앙대학교 제1캠퍼스 본관 1층 입학처)
4.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의 특성
 

최첨단 외국어 훈련 및 강의	모든 강의의 형식을 영어로 진행 고급으로 제공되는 영어 훈련 프로그램
학생의 다양한 미래 계획을 위한 국제 프로그램	미국, 캐나다 대학 MBA/MBA까지 프로그램 프로그래밍 외국 대학과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다양한 인턴십 프로그램	국내외 국제기관, 기업, 연구소, NGO
U Design Your Own Future	전공 영역을 영어 논문 옵션 커리큘럼으로 스스로 전공분야 개발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Chung Ang University  
(Admissions Office) 820-5623-4  
상세한 문의는 gsis@cau.ac.kr의 Q&A를 참조하십시오.

###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 우리나라 대표적 '보수주의'의 역사를 더듬는다



**신두현**  
1951 대구고교 입학  
1956 국·사관학교 1기  
1970 원년집진진  
1980 5·18.1시 보안사원관

1988년 5월 12일 3남 1녀의 아버지로서 큰 아들인 신두현은 '보수주의'라는 용어를 창안한 사람이다. '보수'라는 용어는 원래 '보수'라는 용어에서 유래한다. '보수'라는 용어는 원래 '보수'라는 용어에서 유래한다. '보수'라는 용어는 원래 '보수'라는 용어에서 유래한다.



**박 후**  
1970 영성소속 수료  
대전 신학대학 신학사  
1974 세인트루이스 대학  
~서경대 교수

"학생운동권을 주사파가 지도하고 그 뒤에는 시노방이, 그 뒤에는 사노청이 그리고 그 뒤에는 김경일이 있다" (1998년 7월 18일) "학생운동권 사업은 노조원들이 북한의 사주를 받은 것이다" (1998년) 한국통신 과업팀장

"보수, 진보는 말장난이다. 민주화와 동양이라는 더 큰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2000년 6월 29일 '한겨레' 2기 1과 인터뷰에서)



**이희창**  
1935 6. 2 출생  
61~81 서운고교 겸 필사  
81~86 대법관  
1993 감사위원  
93~94 국무총리  
1998 한나라당 총재

"남북문제는 단순한 자선사업이 아니다. 단호한 용이 흐르는 것을 보여 주 변화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보안법 위반에 대해 "내가 국가보안법을 연구한 것은 보오하고 함의로 운영할 수 있는 구상이 많다고 본다" (2000년 5월 18일 '한겨레' 1과 인터뷰에서)



**김영삼**  
1927 경남거제 출생  
1952 서울대 문리대 철학박사  
1956 민주당 청년부장  
1963 제 6대 국회의원  
1987 13대 대통령 후보

"김주석이 참으로 민족의 정맥을 소중히 생각한다면 남북한 통보의 화해와 평안을 원한다면 이를 논하기 위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만날 수 있습니다" (1993년 2월 취임사)  
"남북양쪽에 200만인 이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군사훈련중단은 안 된다" "민주신앙회 조지프 김정원위원장 담담 반대시연운동은 절실하게 하기 위해 국민운동본부를 설치할 것이다" (2000년 9월 25일 조선일보)

### 보수 · 우익세력의 정당화이후 말 · 말 · 말

## 초강경, 입장선회 등 혼돈 겪는 '한국형 보수'

"정신회담 용어조차 분해해" (한글) "이동원 편집장" "이런 정신회담은 남북의 반공체제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 (자유민주주의) "이철승 대표" "부신, 대구지역을 중심으로 남북공동선언만대 서명을 받을 것이다." (김영삼 전 대통령)

대표적인 보수집단 한국연대는 남북공동선언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드러내고 있다. 남북공동선언을 지지하는 6.25 남측을 주장하며 '민주내부에서조차 자주의 원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다른 나라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자기를 지키는 것인지, 2장 낮은 단계의 연방제에 관해서는 북이 무력으로 국가수반직을 전할 위임이 있다는 견해를 보였다.

지난 8월 정상회담 이후 이른바 한국의 '보수'를 자처하는 논객들의 입김이 뜨겁다. 그동안 북한에 대해 경직적인 상호주의의 적용을 통한 냉전 체제 유지에 동의해 왔던 이들은 정상회담 이후 약간의 혼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계속되는 진행되는 정관계 회담과 정세변화, 문화 교류 속에서 그간 분단체제를 동요해 왔던 이들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일부는 초강경적인 자세로, 다른 일부는 새로운 변화의 면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내부의 변화를 모색하는 이들은 '반공단체' 내부에서 불거지고 있다.

초강경과 노선이 이렇듯 남북공동선언 '트립'에 나서고 있는 것은 이들이 결여한 역사와 무관하지 않다. 일제 시대에 대한 진정론, 해방 후 인공정 당시에 '천비파' 그리고 분단 고착화를 꼽는 세력으로 꼽히는 변신을 거듭해온 한국형 보수 '수주'가 보다 '수주'에 가깝다. 이에 '지금까지 한국사회가 민주 대 반민주의 대결이었다면 이제부터는 통일세력 대 반통일 세력의 싸움이다' (2000.7 '말'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여권 교체에 대한 대결의식을 누그러뜨리지 않고 있는 '초강경파'의 목소리도 여전히 존재한다.

이들 무과적 입정의 보수가 아닌 분단체제하에서 레드 콘플렉스를 조장하며 성장해 온 것이 한국사회 '보수'를 자처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회부 hobang1083@hanmail.net

### 정점 · 조진일보 극복 운동 이렇게 본다

## 부실로 지어진 언론은 언젠가 무너진다

아직도 조진일보 부실운동에 관한 요지와 취지에 대하여 학내 및 사회 전반에 걸쳐 관심이 부족하다. 그러나 정점·조진일보·김정원·김영삼 등이 나와 기쁜게 생각된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조진일보를 극복해야 하는 데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다. 단지 조진일보를 지지자와 진보세력에서 기뻐하기도 했지만: 피싱의 현상만 생각할 것 같아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한다.

조진일보는 배후적 김대중의 정권 교체와 야권 김국방위원장과 이 포츠를 심는 것일까. 그 이유는 두 가지가 있다. 물론 이외에도 조진일보는 다수의 정치인들을 배후적 정치세력이기도 하다. (이게 뭐 대수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국무총리를 지낸 조진일보에서 배후적 정치인들이 과연 중도적으로 있을 지라(이것이 기뻐할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조진일보에 안고 내려지는 선의는 의미처럼 들릴 것 같은데, 우리 언론은 선의가 왜곡되어 있었다. 언론이 잘못된 여론을 형성하고 그 여론에 휘둘린 국민이 잘못된 정치에 들어가고, 이에 더 이상 그러한 악순환이 있어서는 되지 않기에 가장 먼저 조진일보를 봐야 하는지 질문할 수 있다.

2000년 대한민국은 중요한 위치에 있었다. 또한 개개인과 마찬가지로. 언론이 권력을 가지고 올바른 인식을 행동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개개인이 바로 서지 않는 정치는 무질서로 사회 지어진 건물과 같기에, 그러한 정치는 언젠가 무너져 버리게 마련이다.

전두환을 치기 대통령으로 추대한 '전군지휘관회의'에 관한 보도에 접하고 국민 일반은 크게 안도와 고무된 감정을 갖게 되었는데 우리는 믿는다.....

**최봉진**  
(정보산업국 · 정치공회 95)

"8.21 군 결의"에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한층 더 공고히 뒷받침하고 보강하는 일찍이 없었던 국가 간성들의 담보의 표징이다. 간군 이 모든 군이 한 지도자를 전군적 총의로 일사불란하게 지지하고 추대하는 일찍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참지 못하는 불 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애사자들에게 헌신이 자랑하는 그의 '도적지'는 수도생원회보다 엄격하고 규격적인 육군사관학교 4년 생활에서 겪고 뒤따라 더욱 철저한 것이었다.....

"그러한 점에서 '8.21 군 결의'는 또한 역사적으로 깊은 함의를 갖는 것이 되기도 한다." (1990년 8월 23일 시사)

그러나 그의 국가관과 불굴의 의지, 비리를 보고선 참지 못하는 불 같은 성품과 책임감. 그러면서도 애사자들에게 헌신이 자랑하는 그의 '도적지'는 수도생원회보다 엄격하고 규격적인 육군사관학교 4년 생활에서 겪고 뒤따라 더욱 철저한 것이었다.....

"조선일보"는 80년 10월 28일자 사설에서도 5공화국 헌법을 "민주주의 안정과 번영을 위한 헌법"으로 찬양했다.....

2000년 8월 7일(월) 오전 10시 30분 방송

5공화국 이전에는 2부 신문에 불과하던 '조선일보'는 낮뜨거울 때 아침 1부, 오후 1부, 저녁 1부, 새벽 1부, 중도 1부, 주말 1부, 총 7부 7종이 되었다. (김대중 총리 기, 김준민)

가치관의 혼돈

정말 이게 당시 기사였나 싶었지만 사실이다. 이 단편적인 사실이 무엇이 말인가. 과연 이렇게 해서 1위를 차지한 국내 최대의 신문이었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도 정권 지지에 더욱 높은 지위에 있다면 이 신문이 정권지지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갖기 어렵지 않다.

### 삼성센스 울트라매니아!

센스의 차이가 캠퍼스 경쟁력의 차이! 삼성센스

제품	모델명	제품 사양	특별가격
노트북 센스	S680-A1 +무선모뎀	인텔®펜티엄®III 프로세서 600MHz, 64MB 10GB, 24X, 56Kbps, 한국형 친화키 @Key(64Kbps)	₩2,590,000
	S680-A1	인텔®펜티엄®III 프로세서 600MHz, 64MB 10GB, 24X, 56Kbps	₩2,400,000
Win CE2E	S310-1K1S +무선모뎀	RISC CPU 129MHz, 16MB, 한국형 친화키 @Key(64Kbps)	₩1,290,000
	S310-1K1S	RISC CPU 129MHz, 16MB	₩1,100,000
임크로프트북	ML-4900C	2400*1200dpi, 10PPM	₩450,000
	ML-4900C	600*600dpi, 6PPM	₩290,000
레이저프린터	ML-4900C	600*600dpi, 6PPM	₩345,000
스캐너	S10-3000U	실속 스캐너, 1200*600dpi	₩130,000
디지털카메라	S10-80	850만화소, 1024*768	₩310,000

대학생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찬스! (기간:9/21 ~ 10/13)

SEN스 아카데미 특별 판매

무선모뎀 탑재 가능 (별매)

intel inside pentium®!!!

S680-A1

삼성센스 아카데미 구입시 노트북 120시간 기밀교과목에 프리카드(₩50,000) 지급

무선모뎀 동시 구입시 @에터넷 120시간 기밀교과목에 프리카드(₩50,000) 지급

삼성센스 사버일드 인터넷몰 삼성센스몰 홈페이지 삼성센스센터

24시간 고객센터

삼성센스 전국 대리점: 서울 02-2000-3333, 부산 051-750-3333, 대구 053-750-3333, 대전 042-750-3333, 광주 062-750-3333, 인천 02-750-3333, 울산 052-750-3333, 제주 064-750-3333, 강원 033-750-3333, 충청 041-750-3333, 전북 063-750-3333, 전남 061-750-3333, 경북 053-750-3333, 경남 055-750-3333, 호남 061-750-3333, 충청 041-750-3333, 전북 063-750-3333, 전남 061-750-3333, 경북 053-750-3333, 경남 055-750-3333, 호남 061-750-3333







제24차 모의 유엔 총회 보도

# 신안보 확립은 세계공존과 번영 위한 길

2차 모의유엔총회가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신안보체제의 확립(Establishment of the New Dimensions of Security for Peace and Coexistence of Human Race)이라는 주제로 지난 달 29일(금) 서울대여대 국제관 대강홀에서 개최됐다.



신안보체제 논의 중인 모습

모의유엔 총회는 우리대학교를 주축으로 서울대, 이화여대 등의 학생회가 각 나라의 대표역할을 맡아 기조연설과 의결문 채택으로 이어지는 실제 유엔 총회와 흡사하게 진행된다. 하지만, 영어로만 진행되는 실제 유엔 총회와는 달리 영어, 불어, 독일어 등 6개국 언어로 진행되는 차별성을 갖고 있다.

질문 주현영사를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를 시작으로 연휴의 생동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개개의 안보체제를 모색한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학생, 학원, 인권의 새 분 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이런 행사의 주제를 채택한 '신안보체제'는 기존의 안보라는 개념이 군사적 위력으로 부러워 보호되는 의미였지만, 냉전시대의 종식 이후에는 다양한 형태의 사회, 경제적 위협으로부터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안보체제를 뜻한다. 이 자리에는 100여 명의 학생, 학원, 인권의 새 분 야로 나누어 진행된다.

인구가 세계 곳곳에서 기어오르고 있다"며 시장경제 해결을 위해서는 "비교우위에 따른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바탕으로 하는 무역 자유화를 실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인도대교 박용환(한국대 96)은 "직접 교역 자유화의 흐름은 자국의 농업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큰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식량의 자급자족을 지향하나 각국의 주권을 교역의 예외 품목으로 두어야 한다"며 "식량의 전략 무기화"를 방지하는 조약을 체결할 것을 제안했다.

오존층 파괴 문제와 환경기술의 이전 △몬트리올 의정서의 교도 위생사의 확산 △환경권과 환경이슈 등이 주요하게 부각된 환경 문제에서는 지구적 차원의 협력의 필요성에 관해서는 모든 국가대표들이 공감했으나, 대학이전 부분에서는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의견이 갈라졌다. 특히, 지구온난화 문제와 관련해 독일, 호주, 영국 대표들은 개도국의 참여를 위해서는 개도국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차별적인 기준이 제시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우리나라 등 개도국은 "개도국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보장하면

위원장 박필호(영어 99)를 만나

## “탄탄한 행사구성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인류의 평화와 공존을 위한 신안보체제의 확립이라는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이 주제는 작년 NCU대회에서도 연구하지 않은 부분이었습니다. 유엔사무총장의 보고서에서나 다루어지는 생경한 주제. 특히, 문단국은 지정위협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공감하기 쉽지 않은 주제였다. 하지만, 식량, 환경, 인권 등의 문제는 전 지구적 차원의 논의와 협력 해결이라는 세계의 평화와 공존을 이룰 수 없기에 이 주제를 택했다.

이런 행사를 준비해준 학생회는 행사구성의 주제 선정에서부터 포스터까지 모든 세세한 일을 스스로 준비했다. 학생선보이기 때문에 이론은 중요했지만, 정부기관에 찾아 가 부탁하고, 심의하는 일은 하지 않은 일이었다. 하지만, 관계자들에게 정중보고서를 전제로, 학생들이 만들어낸다는 의사를 받은 정도 내용도 전달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번 총회는 매일매일 신문 등 거의 모든 주요 일간지에 보도될 예정으로 있어, 우리학교의 위상을 높일 수 있었으며,

아셈(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은 무엇인가?

## 정부지속 신자유주의의 개편 확대

아셈이 오는 2007년 이후 1차 정상회담에서 열린다. 재건된 번영과 안정의 동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회의는 아시아, 유럽 정상들과 유럽연합 집행 위원 등 26명의 정상들이 참가한다. 이번 아셈회의를 계기로 유럽정상들에게 한국경제의 성장정도를 알리고 IMF관정환율제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IMF관정환율제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IMF관정환율제 확대의 필요성을 알리고 있다.

간 포괄적 동반자 관계 구축'을 주제로 정치, 안보 대화 증진, 경제 협력 강화, 문화 및 기타 분야에서의 협력 증대 등 4개분야의 의제를 다루었다. 이어 2차 연설회에서는 지역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그 당시 있었던 아시아 금융위기에 대한 대처 방안이 논의되었다. 이번 서울회의는 아시아-유럽 협력 지침서 채택하는 등 앞으로 아시아 나갈 방향에 대해 구체적 상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김영삼정부와 지난 1차 회의에서 제안한 '아시아-유럽 비전그룹'이 이번 3차 회의에서 공식 출범하며 제안한 'For The Better Tomorrow'라는 보고서와 토레트 회의가 진행될 것이다. 보고서는 상품과 서비스에 관한 무역자유화의 틀을 아셈회원국들이 만들어 오 2025년까지 완전 자유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금융시장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회계제도와 금융서비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있다. 무엇보다도 보고서는 외국 자본의 차별 금지와 노동시장의 유연성, 규제제도를 요구하고 있다. 이 밖에도 경기기업의 해외매각과 민영화에 대한 방안들을 담고 있다.

기교교 - 아셈을 반대한다

## 세계화, 풍요와 빈곤의 극적인 대비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가들은 늘 더 많은 '개척'을 요구한다. 핵심 공기업들의 사기업화, 각종 규제와 철폐, 각종 국가 보조금과 기본 생활품에 대한 국가 통제, 복지예산의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개척'은 세계의 극소수에게만 이익을 가져다주었다. 약 4만 명의 사람이 전 세계 무역의 80%를 통제하고, 몇 개 초만 한 사람이 자신의 절반(80% 달러)이 미국 전체 인구 40%의 재산과 맞먹는다. 자유 시장 정책은 경제 위기에서 사람들을 구제하고 부를 늘리기는커녕 세계를 더욱 광범위한 상황으로 내몰았다. 로지 자유 시장과 구조조정만이 경제 실리에 최고라고 주장하는 IMF는 세계의 많은 나라에서 자살의 위험에 몰아넣었다. 1991년 IMF의 '중요요인' 직후, 커피의 유류 가격은 하루만 사 이에 300% 치솟았고, 빵값은 1100% 인상됐다. 저급 커피의 빈곤층은 전체 인구의 54%에 달한다. 남한 역시 최저 생활에 이한 빈곤층이 천만 명에 이르러 '가정 잘못된 프로그램'을 가장 충실히 따른 '모범생'이라는 비웃음을 샀다. 9월 28일에 체코 프라하에서는 IMF, ILO 총 회의에 합의하는 5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그리

하여 시에서 WTO의가 폐쇄된 것처럼, 프라하의 총회도 예정보다 하루 일찍 막을 내 려야했다. 작년 11월 사태를 시위 이후 반세계 화 반자본주의 운동의 물결은 세계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서울 아셈 회의가 사내배나 워싱턴에서처럼 신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빈민의 초점이 되는 것을 두려워한.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의 시민단체들이 제기하는 인권, 빈곤, 균형 개발, 민주화, 환경 등의 의제를 아셈에 포함시키는 대신에 오히려 특수경찰을 동원해 시 위 진압 훈련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 아셈은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IMF 나 WTO가 저질러온 일들을 되풀이하려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아셈 회의의 운명을 동향해야 한다. 아셈에 반대하고 항의하는 운동은 세계의 이익을 위해 민간의 행동을 파괴하는 체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반감을 가지고 있느냐를 분명히 보여줄 것이다.

아셈(아시아유럽미팅?) 아셈(ASEM, Asia-Europe Meeting)은 아시아 유럽정상회담이 모여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 국가 전반적인 문제를 토론하고 정책을 도출하는 대규모 회의다. 아시아와 유럽 양쪽의 의견 조정을 위한 의견조정기구 두 개(아셈기구 기조 회의)와 신구 사안에 대하여 논의하게 된다. 논의의 기조는 각국 실무 책임자들의 협의와 거쳐 외부정책회의에서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과정을 거친다.

아셈의 창립배경 지난 90년대 초 구조조정 붐과에 따른 양국 체제에서 다국체제로의 전환은 제재국 국가들 을 세계질서에서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시켰다. 미국, 유럽, 아시아를 축으로 하는 새로운 세계 판도에서 NAFTA(북미 자유무역지대), APEC(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등의 지역경 제블럭이 등장한다. 이러한 흐름에서 각 경제블럭을 전세계적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NAFTA 의 남미로의 확장과 북미와 유럽연합간 자유무역 협정, 아셈인 자유무역협정 등 모든 대륙에 걸쳐 일어나는 이런 흐름에서 아시아와 유럽도 예외는 아니다. 세계적 신자유주의 경제 협력 체인 NAFTA, APEC에 비해 아셈은 아직 초기 단계다. 북미간, 아시아와 태평양 국가간에는 각각 위의 기구들을 중심으로 나름대로 관계가 발전해왔다. 그러나 아시아와 유럽간에는 그동안 이렇다할 협력체가 존재하지 않았다. 아셈은 이런 상황에서 대안적 역할을 할 때 탄생 한 또다른 신자유주의 경제 협력체다. 이번 서울회의에서는 무엇을 다룰까 지난 90년 1차 방콕회의에서는 '아시아 유럽

다국적 기업과 국제 금융가들은 늘 더 많은

아셈(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은 무엇인가?

아셈(아시아유럽 정상회의, ASEM)은 무엇인가?

### 아셈유감

○...우리 크로니를 금하게 될수록 더하고 싶은 사내를 강요하는데... 가는 곳마다 심한 김포부터 감정병도 생긴다. 심해져서 차량 5부제 실시까지 교통우려문제인 스포츠카부터까지 함 애정이라는 소식을 들은 크로니를차. 교통경찰 아저씨께 그 이유를 묻자 "서울에서 개최되는 3차 아셈(ASIA-EUROPE MEETING)의 때문"이라고

이 말을 함께 듣고 있던 택시 아저씨 웃으며 "아셈이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 "각국 정상들이 우리나라를 감시할때부터 비롯해서 아님! 국민들이 요구할때는 듣는 척도 안하더라" "아셈이 무슨 의미가 있는건지 언론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장이 필요하지..."

(경)

○...호모데는 호모데는 지구적 재부와 함께 모 스포츠에 의해 고의로 '커뮤터' (통신자가 스스로 자신이 통신을 하고자 하는 것)를 달한 텔레폰 뎀으로 사정을 보여 우리 크로니를차 드는 생각 '사람들 위해 언론이 있는건지 언론을 유지시키기 위해 사장이 필요하지...'

(경)



## 비틀기철판

소시시간은 1시간 30분 정도 걸리니 미리 신청하세요  
(학생생활상담연구소)

9월 26일(화) 오후 4시~5시 까지 신청 접수  
신청과 학과장실에 맡겨주세요.  
연락처-019-399-5368

교양특별강좌, '제국주의 문화' 강의시간이 바뀌었습니다.  
10월 한달만 필요일 5.6교시에서 화요일 9.10교시(오류 5시~7시)까지로 변경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외국문헌연구소(961-4288)로 연락주세요  
(외국문헌연구소)

합니다

회제등공문 교재 합니다. (세책 29,000원) 3월간 수업내용이 필기도 되어 있습니다. 연락처-019-235-5566  
(책과는 이)

### 왕산길

추합니다

10월에 생일을 맞으신 아이라와 학생들 생일을 축하합니다.  
2일 헌명진(99) 정효진(98), 5일 최현재(95), 6일 남지영(99), 10일 이정원(99), 17일 박수정(00), 23일 김진우(97)  
(홍명두(99)를 비롯한 아이라와 이쁜이들 일동)

합니다

MBTT workshop  
나는 어떤 성격 유형의 사람일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에 관심있으신 분들, 취업 면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일시 : 10월(화) 늦은 3-5시 (학생생활상담연구소)

영도 확장을 꿈꾸며... NEW 평화 문제 연구회입니다.  
011-774-4065 김석천으로 연락주세요.  
wangsangbe@hanmail.net  
(민들레영도 모임)

미스터 외대 선일대회가 있습니다.  
경기 예회로비 사범이 4월(수) 늦은 8시 후부터 3층에서 만나요.  
(HEVE)

'ACCE 토크마태미'  
8월(일) 동아리방과 자레코트에서 행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A.C.C.)

합니다

여성을 지갑을 찾습니다.  
찾아 주시는 분에게는 후시하겠습니다.  
011-9829-3978로 연락주세요. 또는 독일어과 과사, 컴퓨터로 갖다주세요.  
(지킴이는 우리)

비틀기 철판의 문은 항상 열려있습니다.  
알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이문-왕산 기지점으로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주세요.  
광고료는 받지 않습니다.  
이문 학생지식 학생회관 2층 961-4152, 4666 팩스 : 961-4183  
왕산 학생지식 학생회관 2층 (0335)330-4112, 4580

스위스 그랜드·힐튼·롯데호텔 노동조합·사회보협 노조, 학생 연대함마당 보도

# “형님, 우리도 예비 노동자입니다”

“지난 7.8월 우리는 누구보다도 뜨겁게 여름을 버텼습니다. 모든 것을 녹여버릴 듯한 열기를 뚫고 아스팔트 위에서, 어쩔 수 없이 찾겨 올라간 호텔 옥상 위에서 우리의 사업장을 지키기 위한 뜨거운 열기를 지고 살아왔습니다” 사회자의 제법재만한 목소리에 행사장을 가득 채운 인파는 ‘와이’ 하는 함성을 지른다.

지난 27일(수) 서울메리어트 대운동장에서는 롯데·스위스 그랜드·힐튼 호텔 노동조합, 사회보협노동조합, 학생 연대 함마당이 열렸다. 행사는 500여명의 노동자와 200여명의 학생이 모인 가운데 펼쳐졌다.

△연대사 △호텔 3사와 사회보협노조의 보고 발언 △노동자, 학생 연대의 공연으로 이어진 행사는 지난 6월 롯데호텔 감경진압, 사회보협노조의 노동조합 가입지 탄압, 그리고 가장 최근의 스위스 그랜드 호텔 문제를 함께 연대해 풀어보자는 것이 이 행사의 취지였다.

사회보협노조 중앙평의회위원장 이삼중(30세)은 “20여년간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한 호텔 호텔 조합원들은 73일간 장기항쟁을 통해 직장 신격화를 굴복시켰다. 이처럼 우리 사회보협노동조합도 ‘연대’라는 큰 불꽃의 속에서 우리의 문제를 풀 것이다”며 행사에 온 이유를 밝혔다. 행사장에는 특히, 지난 27일

(목) 파업 10일째를 맞아 공연력이 무인, 황인성 노조기부장 등 5인의 부상자와 10여명의 부상자를 낚은 스위스 그랜드 호텔에 대한 지지의 분위가 뜨거웠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환원할 것, 임금인상 간 등과 관련, 파업에 돌입했던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사측이 21일 연행자 발생 이후 “사규에 의한 강제 조치는 절대 철회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보여 현재 소강 상태를 맞고 있다. 이에 롯데, 힐튼 호텔 등도 가세, 3대 호텔 노동조합 연대체를 만들어 공동대응에 있다.

행사에 참여한 힐튼호텔 노동조합 부위원장 최병식(조리과 부부장, 31)씨는, “사측의 대응 논리가 예전과 다름없다. 6월 롯데 사태의 경우도 거의 예전 특제정권 시대 노동단압에 맞먹었을 정도”라고 말한다. 우리는 어느 한쪽을 거꾸러뜨리고자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사측, 조합 모두 양보해 부문을 양보하면 서로의 목표를 타는 것이다”며 대답할 심경을 드러내기도 했다.

오후 8시에 시작, 10시까지 이어진 행사는 참여한 학생들과 노동자들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분위기였다. 이는 끝무렵 나온 민중가수 박준희의 무대가 이어지면서 절정에 달해, 참여단체 모두 들고는 깃발을 앞세우고



무대로 올라가는 진풍경을 연출하기도 했다. 또한 특이하게도 힐튼 호텔에서 공연을 위해 여러 풍양으로 조각된 수막 작품을 선사해 이를 서로 가지려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예비 노동자인 학생들과 정부와 사측의 계속된 구조조정 논리에 힘으로 맞서고 있는 노동

자의 연대의 진수를 보여준 연대함마당. 행사를 준비한 민주노동당학생위원회(의대 대표 김재원(성경·무역 80)은 “앞으로라도 이어질 아쉽지만 집회, 민중생존권 대회에서도 두손 꼭 잡고 갈 수 있는 굳건한 연대의 틀을 다진 듯 했다”며 참여 소감을 피력했다.

사회부 habbang103@harmail.net

# 지금, 월곡동은 전쟁중

### 포크레인, 몰대포 동원 철대위 사무실 철거시도

계속해서 철거 위협에 시달리던 월곡 4동이 지난날 29일(금) 새벽 4시 공권력에 의한 첫 침탈에 이어 백력과 대치중이다. 이에 지지방문을 마치고 돌아오던 우리학교 유하나(동물·중국어 97)와 비룡, 학생 15명이 연행되었다. 지난 1일(일) 몰려났으나 유하나(양은 건축공정 실집시사후 29(월) 오후에 풀려났다.

유안은 28일 오후 8시경 월곡동 지지방문에 참여, 이튿날(29일) 새벽 가을눈에 참여하기 위해 월곡동을 빠져나오다 근처에 잠복해 있던 사복경찰에 의해 연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오전 4시경 신원환경소속 공역직원 545명과 전투경찰 4개 대(중앙경찰서 소속)가 월곡동에 투입, 월곡삼정(사)대책위원회(최대위) 건물로 시작으로 철거를 진행하려다 철대위 조합원들과 지지방문은 학생들에 의해 저지되었다.

이들은 대형 크레인과 포크레인 등을 동원, 철대위사무실을 포위하고 오후에 접근하는 학생들을 계속 연행하고 있다. (10월 2일 오전 4시 현재)

이후 계속된 대치상황을 겪으며 100여명의 전투경찰을 배치, 철거작업을 진행하려 하고 있다. 철대위는 그동안 ‘기수용상기조성과 임대상기 입주보장’을 요구하여 상복공과주 재개발체인 부산건설과 협상을 계속해 왔으나 1

기구당 불과 500여만원이 책정되는 등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이에 상복공장은 “10월 2일까지 무조건 철거를 진행시키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고 이에 29일 철대위 사무실 철거를 시도한 것이다.

월곡삼정(사)대책위 관계자 은우(31)씨는, “29일 철거 당시 조합원을 가만히 직원들을 배치, 조합원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등 교란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고한다.

또한 법적인 철거하는 시간은 오후 5시로 명기되어 있는데도 사람이 없는 밤이나 새벽을 이용해 철거작업을 계속 진행하려 하고 있어 문제되고 있다.

이에 동아리연합회 회장 이숙주(사회·정치외교 97)은, “지금 필요한 것은 단순한 지지방문이 아니라 가서 함께 싸워주자는 것이다. 계속되는 인권유린이나 강제철거를 진행하면서 임대대동원 운동하는 것이 얼마나 허구적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상황에 대한 분노를 전했다.

한편, 월곡동 철대위의 지속적인 연대활동을 지켜왔던 동아리연합회는 앞으로 지지방문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사회부

자주교류 이렇게 하자 ① 자주교류의 역사와 의미

## 불법잡입·편지교환에서 직접교류 시도로



자주교류의 역사와 의미

자주교류란 간단히 말해 남과 북, 해외와 서로의 협의를 위해 만남을 성사시키는 교류를 의미한다. 강요나 한쪽의 이익이 아닌 상대방의 실정을 이해한 바탕에서 진행되는 것이 자주교류의 본 목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역사적으로 본다면 남과 북이 처음 전개한 자주교류는 평안을 위해 남과 북의 정담, 사회단체 등이 모여 평양에서 개최한 1948년 남북 정담, 사회단체 연석회의이다. 이 회의에서는 당시 분단을 고착화시킬 수 있는 남한인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 각계단체가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53년 ‘휴전협정’이 맺어지면서 남북은 실질적인 분단체제로 돌아갈게 된다.

이후 학생들을 중심으로 전개한 자주교류는 60년 4·19 혁명 이후 시작하게 된다. 이는 처음에는 민주화 운동의 일환으로 시작했지만 차츰 민족문제를 인식해 81년 5월 3일에는 전국 20여개 대학이 함께 한 민족통일 전국학생연맹이 조직되었다. 이들은 5월내로 남북학생회담을 판문점에서 열 것을 제의했지만 곧 5·16 쿠데타와 함께 ‘남쪽’을 국시로 한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 무산되고 만다. 국내에서는 독재정권이 수립, 국외로는 냉전체제가 계속되면서 남북 교류 또한 이어지지 못하다가 80년대 말 다시금 학생들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바로 88년 서울대 총학생회장 선거 후보였던 김경우씨가 유세장에서 ‘김일성평화대학 학생

들에게 보내는 글’을 낭독,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이후 학생들 사이에서는 ‘가자, 북으로. 오라 남으로. 만나자 판문점에서’란 구호가 유행하며 88년 6·10, 8·15 남북학사 체육회담 성사운동이 전개된다. 89년에는 평양에서 열린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우리학교 일수경(물어 84)씨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대표로 참여, 남북 대화함으로써 처음으로 북녘 땅을 밟는 역사를 남기게 된다. 한편, 88년과 89년의 각 대학의 자발적인 교류에 대한 노력의 성과로 90년부터 본격적인 자주교류의 움직임이 시작된다. 전국적으로 300~400여개 과거 이 운동에 참여, 활발한 분위기를 이끌었다. 이에 91년에는 전국대 국문과, 세종대 국문과, 성신여대 화학·수학과가 가시적인 성과를 이룩했다. 이들 과는 6월 말 첫 원지를 북한 학생들에게 발송하였고 9월 초 중국 베이징에 위치한 범민족학생연맹(범민족학생) 공송사무국을 통해 9월 초 답신을 받게 되면서 판지교환운동이 대학가에 급속히 확산된다. 또한 90년부터 학술교류를 추진했던 전국대 국문과는 91년 말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판문점에서 남북 대학생이 만나는 1.2차 실무회담을 성사시키기에 이른다. 이후 92년에는 이러한 흐름의 양력화 확산이 이루어졌고 학생들의 상상력 3차(남, 북, 해외)대거구인 범민족학인 8월 정식으로 출범했다.

(자료출처: 부산대학교 자주교류 자료집)

사회보도 11

### 오늘(3일) 민족의 날 기념행사 및 6·15 남북공동선언 토론회 열려

오늘(3일) 오후 2시 함마당에서는 ‘민족의 날’ 행사가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민족의 기본권 보강과 양심수 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민권대위)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주최로 열린다.

매년 개최를 맞이 개최되어 이 행사는 올해는 특히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이행’을 가장 큰 기치로 걸고 준비했다. 이에 1부에서는 민족의 날 기념 행사, 2부에서는 ‘6·15 남북공동선언 지지의 토론회’가 열릴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남북교류 추진과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선언 1, 2항의 실천 과제 등이 중심 의제로 채택됐다.

### 대우차 매각 진행안 원대·다임러 공동인수 포기, 협박남할 우려 확산

현대자동차와 다임러크라이슬러 컨소시엄의 대우자동차 공동인수 협상이 무산돼 대우자동차가 GM·피아트 컨소시엄이 단독입찰 대상자로 떠오르면서 해외 협박매각에 대한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다.

더구나 GM조차 인수에 적극적인 의사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팔리더라도 할랄 나할이 불가피해 시간단체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공개입찰 방안 다시 힘을 얻어가고 있다.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은 위협 또 다임러

### 한총련 대의원 3명, 이등중 연행

지난달 29일(금) 고려대학교 서캠퍼스 부 총학생회장 최추명(경제 90)을 비롯, 3명이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한총련) 대의원 활동 혐의로 연행됐다.

‘장고·연 민족해방’을 마치고 서울로 이등중이 이들은 조지훈 보안수사대에 의해 서울에서 강제연행됐다. 이에 고려대학교 학생배우들은 규탄 성명서를 발표, 항의방문 등을 준비해왔다. 연행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부총학생회장 최추명(경제 90)  
여학생회장 정희정(국문 90)  
동아리연합회 이종(경제 90)

우리가 세계를 읽고 세계가 우리를 읽습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JoongAng Ilbo

뉴욕타임스 위싱턴포스트가 함께 만드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 이미 세계 187개국에 선행발행했습니다. 한국에서는 International Herald Tribune-JoongAng Ilbo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세계 정상의 신문들이 전하는 정확하고 신속한 국제뉴스는 물론, 중앙일보의 한발 앞선 정보까지 고담영어로 만날 수 있습니다. International Herald Tribune-JoongAng Ilbo. 세계와 시대의 주역인 여러분의 신문입니다.

- 세계 187개국에서 발행되고, 180여개국에서 함께 읽습니다
- 중앙일보의 NO.1 정보컨텐츠를 고급영어와 함께 국내뉴스 선택으로 읽습니다
- 인터넷까지 곁잡은 정보영어의 시시공으로 영어학습교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 10월 17일 발행 ■ 구독문의: (02) 751-9222

영화평 · 오수정

# 얼음판 위의 달콤 씹새름한 키스!

영화 '오! 수정'은 홍상수 감독의 90년) 작품들과 많이 닮아 있다. 영화 '오! 수정' 또한 불랄리스러운 연애담을 다루는다.

미술관을 운영하는 재훈과 무심하게만 수정, 그리고 영화감독을 꿈꾸는 170 원수간의 어질큰 구애와 누추한 복음이 스텁된 상에 불미스럽게 펼쳐진다. 연애의 낭만적 자유비라고 념찰하게 그들의 일상속 단요라는 감독의 시선은 전자들과 유사하다. 하지만 영화 '오! 수정'은 그러한 동일성 위에 차이를 아로새겨 놓고 있다. 강원도 산길 위에 평경스럽게 죽어 가는 봉어의 이미지, 그것을 무표정하게 바라보는 어두운 인공의 죽어있는 풍경은 전작 '강원도의 힘'의 세계이다. 그런데 영화 '오! 수정'은 봉어 대신 종신들이 등장하고 무표정한 시선 대신 두 남녀의 다정한 눈길에 온다.

키스의 상메조자 변화하지 못하는 기억의 공간, 스펠과 프르를 해체대로 기억하는 출진. 영화의 공간은 이러한 극치의 보수화로 채워지지만 홍상수 감독은 그것을 유쾌한 유머로 담아내는 여유를 보인다. 재훈은 수정의 처녀성에 강한 사를 연방하고 순진하게만 보이던 수정은 재훈볼래 보레 지어삼 뱉기어 숨까지까지 하는 열약함이 존재한다.

영화 '오! 수정'은 무심한 듯 하지만 열 재능이 없어 보이는 원수: 시공실관 뉘소적이고 동료인 수정과 그랑듯한 불투명 꿈꾸지만 그것도 마음대로 되지는 않는다. 이들의 어슬픈 연애와 이기적 욕망 그리고 비현실이 스텁된 위에서 펼쳐지지만 그것이 해구성된 영화적 현실로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은 왜일까?

한지 우리는 수정을 무심코 길거리를 지나가다 만나게 될 것만 같다. 인사를 슬림에서 언젠가 내가 그들과 같이 술을 먹지는 않았었을까 하는 기억의 파편이 떠오르려 한다. '연애의 낭만'을 다루어온 수많은 영화에 걸맞은 우리들에게 영화 '오! 수정'이 제시하는 '연애의 현실'은 한편으로 거부스럽고 다른 한편으로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자아낸다. 그 거부스러운 것은 테이프로 녹음된 자신의 목소리를 듣고 느끼는 자기화인의 낯선 경험과 비슷하다. 그 낯설음을 위무(無慮)하기 위해 우리는 어슬픈 미소를 짓는다.

평겨져진다. 여기에 드리워진 일상의 무게는 '강원도'라는 도피의 공간에서 뒤떨어질 뿐이다. 강원도의 탁백한 숲과 화색빛 바위들은 장엄한 풍경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공물의 후면에서 죽어있는 풍경으로 존재할 뿐이다. 강원도는 삶의 지겨움을 배기시키고 화인사이다. 이렇듯 영화 '강원도의 힘'의 공간은 희망 없는 살중경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영화 '오! 수정'의 공간은 겨울임에도 오히려 바스하게 느껴진다. 숲 비는 인간들의 억척된 심리를 잘 다루어온 홍상수 감독은 '오! 수정'에서 여전히 인사를 슬림 골목에 카메라를 가져간다. 하지만 이전의 작품과 달리 영화 '오! 수정'의 그 비범은 추함과 골목은 아무리 볼 필요 없는 삶이라 할지라도 누군가를 사랑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곳에서의 키스와 색소가 비록 잊갈된 기억으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라 해도 그 추운 겨울 날 개자만을 누리다가 있었다는 것 하나만으로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된다. 여기에 흑백의 촬영은 이러한 해학의 연애담이 펼쳐지는 공간을 빛 내는 사진처럼 더욱 생경하게 한다.

영화 '오! 수정'은 흑백이다. 흔히 영화에서 흑백은 과거의 재현으로서 쓰인다. 하지만 '오! 수정'의 흑백은 그러한 재현보다는 전혀 무관하게 보인다. 물론 잊갈된 기억을 카메라에 담는다는 의미에서 흑백은 과거의 이미지이지만 영화에서 중요한 것은 '과거'라는 시간 이 아니다. 기억은 어차피 현재화된 과거이며 '인사들'의 현실 속에서 기억의 왜곡은 용서될 수 있다. 흑백의 이미지는 추한 욕망과 이기심만이 존재하는 차가운 영화의 공간에 혼돈함을 더해준다. 전작 '강원도의 힘'이 슬막히듯 더운 여름을 배경으로 관계의 필요성에 대한 냉정한 '관찰'로 일관되어 있었다면, '오! 수정'은 비록 추운 겨울을 배경으로 했지만 재훈과 수정의 차가 어린 욕망과 연애는 흑백 필터의 시선 속에서 '관찰'이 아닌 '관조'로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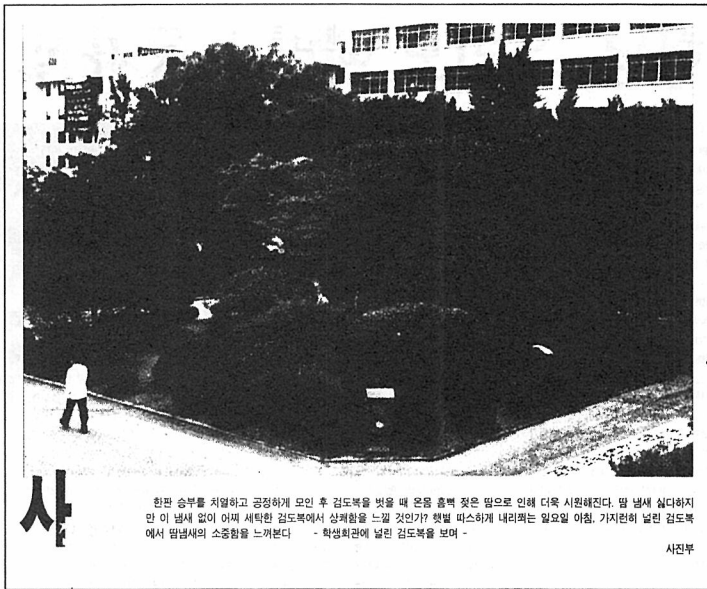
홍상수 감독의 이전 작품 특히 '강원도의 힘'과 영화 '오! 수정'의 카타르 치는 영화적 공간이 주는 반향이다. 출구 없는 일상성 안에 묶여 있는 도시의 삶을 벗어나고자 파나는 여행. 거기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자연의 소리'도 '맑은 파도소리'도 아니다. 단지 짧은 순간이나마 지겨운 관계의 무게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영화 '강원도의 힘'에서는 이러한 우리의 작은 소망마저도 내

대박작 '재자가 우물에 빠진 날'에서 출구 없는 삶의 일상성을 '강원도의 힘'에서는 불가능한 관계의 필요성을 예리하게 관촬했던 홍상수 감독은 '오! 수정'에 와서 약간의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이전 작품들이 '소름돋기'는 인간 관계란 영화적 소재가 일관된 형식으로 보여졌다. 하지만 회한하게도 그것들은 대중과의 소통가능성을 초래했다. 즉 홍 감독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것일각? 홍상수 감독은 영화 '오! 수정'을 지극한 일상 의 폐쇄성에 유쾌한 유머와 가벼운 농담을 뒤섞고 꼭 마친 현실에 승구명을 띄어 놓는다. 관계 뒤에 매트를 발야야 하는 겸작스러운 현실이 재훈과 수정을 묶어내고 있지만 재훈의 수정에게 한 약속(자신의 모든 단점을 고쳐줬다는)은 얼음판 밑의 종신처럼 잠시나만 그들의 일상을 위로해준다.

물론 영화 '오! 수정'은 관객인 우리를 판타지의 세계로 인도하는 편안한 영화는 아니다. 영화 '오! 수정'은 우리의 일상 그리고 기억을 오르내리고 조자 맞추어 미로 같은 삶의 단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 불기해한 기억과 현실 속에서 수정과 재훈은 끝없는 키스와 포옹으로 살얼음판의 현실을 이겨내려는 것일까? 불안한 얼음판 위의 달콤씹새름한 키스! 이 낯설면서도 포근한 장면이 영화 '오! 수정'이 담고자 하는 세계가 아닐까!

양정호  
(서양 · 영화98)



## 사

한편 승부를 치열하고 공경하게 오인 후 검토복을 벗을 때 온몸 훑듯 젖은 맘으로 인해 더욱 시원해진다. 맘 냄새 싹타하지 만 이 냄새 없이 아저 세박한 검토복에서 상쾌함을 느낄 것인가? 뒷발 바스하게 내리꽂는 필요일 이됨. 기지런히 날린 검토복에서 맘냄새의 소중함을 느껴본다. - 학생회관에 날린 검토복을 보며 -

사진부

## 사랑

진채현(사회 · 행정 99)

아가의 맑은 눈과  
자율처럼 투명한 마음으로  
생상을 바라볼 때  
사랑이 작습니다

사랑은  
아직없어 배푸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제, 오늘, 내일, 김수복  
가서 지어주었던 것을 상대에게 내어 줍니다

그렇다고 사랑은  
뜨겁게 주는 것은 아닙니다  
받지 못한다고 의심해 할지도 않습니다

어머, 스승님의  
그림습니다

사랑을 담고 싶습니다.



Virgin stripped bare  
by her bachelors

# 외대학보 홈페이지

## 도대체 어떻게 되거야

www.widagukbo.com

www.widagukbo.com

www.widagukbo.com

29일(금)